

한국교회 공(公)예배에서의 기독교무용 활용의 한계와 극복 방안에 대한 모색*

이신영(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조선하(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과 박사졸업)

I. 서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롬 11: 36).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써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예배이다. 이러한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제로 열린진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유로운 대화의 장으로 나아가는 현장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예배의 요소들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예배의 요소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상이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동시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공통된 통일성 또 한 가지고 있다(이영철, 2014, 62-65; James. F. White, 1997, 252-253). 즉 기독교 예배는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그 안에는 어떤 주어진 것이 확실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주어진 것이라 ‘복음적’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예배의 변하지 않는 본질을 말하며 시대와 지리적인 것을 초월해서 예배에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예배를 계획하는 일, 즉 예배의 요소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 자체를 복음적으로 구성하는 일이다. 이 예배를 위한 언어에는 단순한 음성 언어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와의 만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모든 행동, 상징, 태도가 포함된다(신형섭, 2014, 100-103; 2015, 38-39). 당연히 이 모든 것의 내용 또한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독교무용은 예배를 위한 행동·상징적 언어로서 예배의 목적과 예배 요소에 부합하는 행위로 사용 될 수 있다. 이는 무용이 포함하는 상징적 언어의 표현이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으로 하여금 의식적인 예배로 이끌어 주며 그 행동이 지시하는 신앙의 참된 신비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실제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이다. 무용을 통해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임재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용은 그 어떤 예배 요소 못지않게 예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2016년 조선하의 박사학위논문 한국교회 공(公)예배에서의 기독교무용 활용의 한계와 극복 방안에 대한 모색을 수정·보완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예배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의 예배 요소로 기독교무용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공(公)예배 내에서 기독교무용의 활용은 미비한 상황이다. 공적인 예배 안에서의 무용의 활용은 교회력으로 지켜지는 절기예배와 예배의 특별한 순서로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매주의 예배에서 실시되는 비율은 최근 들어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무용이 행해지는 예배가 공(公)예배인지, 청년 혹은 구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열린예배인지, 또는 주일 오후 예배인지는 조사내용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단지, 무용 공연팀을 보유하고 있는 조사 대상에 속했던 대형교회들의 주일 대예배에서 무용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주 무용이 행해진다면, 보다 자유로운 형식의 오후예배나 열린예배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공(公)예배 이외의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인 복음적 집회(찬양예배, 열린예배, 전도집회 등)에 있어서는 기독교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의 수단(최수진, 2016: 42)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해외사역의 현장에서는 복음적 문화사역의 중요한 역할과 문화예술적 기능으로써 예술 작품의 공연 활동 등 예배 외적인 영역에서의 지평은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편향된 성장과 수요의 이유는 기독교무용에 대한 인식소사의 선행연구를 통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독교무용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 기독교무용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측면에서 그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개선되었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조룡, 2002, 30; 이지연, 2006, 75; 이정인, 2010, 75; 최수진, 2015, 105). 그러나 그 중요도는 찬양이나 성가에 비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활용 면에서도 예배 전(前) 또는 전도활동 등의 외부적 활동에서 타당하다는 결과로 공적인 예배 내에서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정인, 2010, 59-61). 이는 기독교무용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인식의 변화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기독교무용가 또는 기독교무용단체의 측면에서 ‘더 깊은 기독교적 마인드와 성경을 주제로 한 내용’과 ‘테크닉 안무에 대한 연구로 전문성 확립’이 개선점으로 지적되었고, ‘보여주는 것에만 치중한다’와 ‘산만한 모습을 보일 때’, ‘전문성의 결여’, ‘무용인의 예배의식 결여’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장애 원인으로 보고 있다(함성애, 2005, 47; 이정인, 2010, 73). 이것은 기독교무용이 공적인 예배 내 활용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다.

한국에서 주일 대예배로 지칭되는 공(公)예배는 예전과 형식을 매우 중요시하며, 예배의 구성에도 신중을 기하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公)예배 역시 참여하는 회중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영광을 경험하고 회중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남의 장임에는 다를 바 없다. 기독교무용이 특별히 이러한 공(公)예배에서 제한을 가진다는 것은 무용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순기능들 특히 예배를 통해 회중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매개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무용이 기독교 예배와 사역의 전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성에 대한 고려를 위해서도 공(公)예배에서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은 요구된다.

선행연구와 기독교무용가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기독교무용은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역 영역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公)예배에서 행해지려고 하면, 예식과 예전을 중시하는 공(公)예배의 특성 상 대다수 교회는 부정적 반응 혹은 결정을 유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많은 예배들 중에서 공(公)예배로 지칭되는 주일 대예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기독교무용의 예전적 적합성, 예배 내 활용의 적절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무용이 회중들에게 공(公)예배에서의 예배목적보다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요소로써 공(公)예배 안에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를 이해하고, 공(公)예배 내에서의 기독교무용 활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기독교무용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문헌연구 중심으로 살펴보고 공(公)예배 내에서의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II. 기독교 예배에 대한 이해와 공(公)예배의 의미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즉 예배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자 강령이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세기 후반 목회자였던 요한이 어느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찾아온 환상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에는 구원 받은 모든 사람들의 셀 수 없는 무리가 천국에서 행하는 유일한 일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라는 것, 즉 예배라는 것을 보여준다(요한계시록 19장).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궁극적인 모형이다.

구약성경에서 예배와 관련된 단어는 ‘섬긴다’(출 3:12, 4:23, 7:16) 와 ‘절하다’(욥 9:13)로 표현되어 있다. 백성홍(1987)은 구약에서 예배로 기록된 용어의 어원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께 무한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경배

둘째,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과 복종

셋째,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봉사 와 헌신(백성홍, 1987, 180)

구약에서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인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에 대하여 인간들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관점에서의 예배도 구약의 예배와 동일하지만, 이에 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수그리스도의 중재가 포함되었다. 폴 훈(Paul W. Hoon, 1979)은 「예배의 통합(The Integrity of Worship)」에서 “기독교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God’s revelation)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man’s response)”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즉, 기독교 예배에 대한 중심개념은 하나님의 계시(revelation)와 인간의 응답(response)이다(Franklin M. Zeigler, 1977, 225-226).

신약시대의 예배는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 오늘날 예배의 주요 전제가 되는 사항들을 말씀하시고 몸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구약의 예배 방식이 아닌 새로운 예배방식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다(요 4:24).

두 번째, 초대교회 이후 현대 교회에 까지 이어지는 예전의 주요 요소인 성찬과 세례를 직접 보여주셨고 그것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다(마 28: 26-28, 28: 19-20).

세 번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희생제물의 성전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마 27: 51).

예배는 형식이 아닌 정신을 강조한 예수의 가르침과 같은 선상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라고 하였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이어져온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예배인지를 예수의 가르침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제시하는 요약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이런 예수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였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오늘날과 같은 예전적 예배는 아니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유롭고 생동감 있으며, 열정적이고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예배였다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예배의 기본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에 있어서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참된 예배를 드렸다.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공(公)예배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반적으로 공(公)예배라 함은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성격을 띤 예배로서 신자들의 개인적인 삶의 집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받은 성도의 공동체 즉 교회적인 예배”라고 하고 있다(김수학, 1982, 76). 교회용어사전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합의에 의해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드리는 정기적이고 전통적인 예배를 가리킨다. 일명 ‘공중예배.’ 교인들이 주일마다(혹은 이외에 정한 시간에)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공예배의 모범적인 모습이다”라고 하고 있다(가스켈스브, 2013, 73).

개신교에서의 공(公)예배라 함은 통상 ‘주일 대예배’로 지칭하는 예배이다. 초대교회가 후기로 오면서 안식일 보다는 오늘의 일요일, 즉 주일에 모였던 것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을 기준으로 주일을 정하고 이날에 예배를 하였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주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율법적 언약을 이루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날로 의미를 가진다. 기독교는 이런 의미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공(公)예배는 지역과 문화를 초월해서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공적인 예배의 내용과 절차와 형식을 갖춘 예배를 의미한다(이광호, 2002, 60-67, 79-80). 예를 들어 한국의 새벽예배, 수요예배, 주일 오후예배 등은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이 많고, 한국교회의 결정에 따른 예배라고 볼 수 있다.

오늘의 예전적 예배는 제도화된 교회 이후에 정착된 것이다. 개신교회의 입장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당시 예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전적 예배가 제시되고 적용되었다는 역사를 볼 때 오늘날의 시대에는 어떤 관점에서 예배를 받아들이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고, 신약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폭넓고 다양한 예배에 대한 사상을 참고하여 공(公)예배는 예배의 근본정신을 회복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공(公)예배 이외의 여러 예배들은 공(公)예배가 가지고 있는 정신들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갱신 되어야 한다.

III. 기독교무용의 공(公)예배 내 활용에 대한 당위성

성경에서는 특별히 신약에 비해 구약성경에서는 춤이라는 단어 혹은 춤을 추는 상황이 자주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신약 성경에서 춤이 사용된 구절들을 상황에 따라 분류하면 그 대상이 하나님 인 경우와 이스라엘인들의 생활 속에 행해진 춤, 비유와 상징으로 사용된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신약 성경에서는 비유나 상징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춤에 대한 언급을 확인할 수 없다. 신약은 율법의 외형과 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그 본래의도에 더 다가가도록 요구하고 있다. 몸에 대한 관점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구절이다(고전 6: 19-20).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춤이 될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춤에 대한 것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예배에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안된다든지 하는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수단이었으며, 찬양이라는 의미에 춤을 추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당위성은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성경적 당위성뿐만 아니라, 공예배의 당위성을 위해서는 예전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기독교회의 예배의 정의와 예배에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적인 예배’를 위해 규정된 교의 또는 관례를 의미하는 예전에는 ‘순서’(order)와 ‘의식’(ritual)과 ‘예식’(ceremonial)이라는 세 요소가 존재한다(가스펠서브, 2013: 273). 예배 예전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배우며 변화하고 성장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예전의 현장은 말씀해석의 자리이자 믿음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다(신형섭, 2015: 35).

예배를 구성하는 예배의 요소는 예배가 예배적 목적을 달성하며 도울 수 있도록 예배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특정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 매개체로서의 예배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매개체는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이다. 예배의 요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예배자가 소통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예배는 이러한 예배의 요소들을 사용하여 구성하며, 이 예배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겠다고 통상적인 통로로 정하신 요소와 일치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만나 주실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분께서 정하신 통상적인 수단으로써 이러한 방법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요소들을 통로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김용호, 2003: 17).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전은 끊임없이 정의되어 왔고 변화되어 왔다. 신약 시대 이후 예배의 외적 형식 또는 공(公)예배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방법은 없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선 초대교회들을 위해 사도들은 서신을 통해 기독교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침이 없다. 이러한 사도들의 사상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루어진 예루살렘 공의회와 중요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대적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아닌 복음의 핵심이 각 민족마다 문화적 특성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예배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민족마다 문화적 특징이 반영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제자들의 이해를 통해서 신약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근본적인 성격은 ‘예

배는 마음에서의 내적 경험’이라는 점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요 4: 20-24).

박성환(2011)은 예배적 요소의 도입에 있어서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예배적 요소의 타당성 검증과 둘째는 과연 새로운 예배적 요소가 공(公)예배 시 회중의 능동적 참여와 기대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하였다(박성환, 2011: 109).

이러한 두 가지 방향 중에서 예배적 요소로서의 타당성은 춤 그리고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도구(요소)라는 것을 앞서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회중의 능동적 참여와 기대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는, 구약시대의 춤은 전문적인 혹은 특정한 무용수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춤을 추었다고 하고 있지 않다. 무용은 이미 회중을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었다. 그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이 몸과 자신의 감각, 상징 등을 통해서 그리고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무용과 같은 비구술적 언어의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현대예배의 구성의 특성상 회중의 참여가 어렵다면 그들의 기대감을 고취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을 매개한다는 측면에서 보아도 구술언어의 한계인 지역, 문화, 세대를 뛰어넘어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회중의 반응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비구술언어가 가진 장점은, 무용이 가진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용은 육체의 움직임과 생동감의 조화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비구술적인 의사소통 요소들을 종합한 복합적 비구술적 의사소통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웨이크필드(Wakefield)¹⁾와 마이크 필라바치(Pilavachi)²⁾의 언급과 같이 청각과 시각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며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안무 같은 것이 예배에 필요하며, 종교적 형태의 직접적 표현으로서의 당연한 행위로 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용이 가지고 있는 비구술적 의사소통 능력 때문일 것이다(Mike Pilavachi, 2007: 60-61).

이렇듯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비구술적 언어인 기독교무용의 공적인 예배에서의 활용은 반복적이고 모방적인 방식의 구술 중심의 예배가 주는 직접적인 메시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유와 상징들이 회중 각자에게 맞도록 해석되어지고 그 비유와 상징들에 감추어진 의미들이 오늘의 회중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창조적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회중들은 무용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예배에서의 영적인 고취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기독교무용은 적절한 예배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IV. 한국 기독교무용의 현황

- 1) 웨이크필드(Wakefield) “청각과 시각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며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안무 같은 것이 예배에 필요하다”
- 2) 마이크 필라바치(Pilavachi) “억지로 지어낸 미소 같은 외적인 표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해보거나 우리를 믿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위선일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몸으로도 표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 중에 춤을 추거나 손을 드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아니며, 자기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만든 장애물이다. 우리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웃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행동을 한다.”

1. 기독교무용의 기능과 역할

기독교무용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분류의 기준과 표현에 있어서는 약간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무용의 역할은 예배에서의 역할과 그 안에서의 기능들 그리고 교회 혹은 기독교단체에서의 집회와 행사, 절기, 전도집회, 선교활동 등이 있으며, 부가적으로 기독교무용 전문가들의 기독교무용공연을 통한 문화예술적 기능, 교육적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독교무용의 기능과 역할을 예배적 기능과 예배외적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기독교회의 사명은 예배와 선교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배이고,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예배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활동하는 수단 혹은 도구이다. 이것을 고려하면 예배와 선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배외적활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목적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는 연구자가 참여했던 다양한 공연활동에서 무용의 장르 혹은 무용의 소재, 사용할 음악의 선정 등을 정하는 부분에서 기준선으로 고려하였던 일반적 기준이다. 기독교무용을 고려할 때 해당 모임이 예배인지, 전도집회인지, 절기에 따른 공연인지 등의 모임의 성격과 참석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무와 음악, 의상 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무용은 어떤 경우이나 그 일차대상은 하나님이며, 그 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독교무용의 대상이 되는 관객을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한다.

1) 예배적 기능

기독교무용의 예배적 기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매개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의 기능 그리고 성경적 메시지의 전달도구로서의 기능이 있으며, 부가적으로 이를 통한 내적 치유 및 회복의 기능이 가능하다. 기독교무용은 몸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근거로 신체를 통해 성경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현재 대다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公)예배는 다소 의례적이고 반복적인 예배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설교 중심의 예배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예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예배에서도 회중에게 충분한 감동을 전달할 수 있지만, 기존의 예배방식에 기독교무용이 이루어진다면 감정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무용이 없는 예배보다는 회중들에게 보다 더 풍성한 경험을 도와서,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매개할 수 있는 것이다.

2) 예배외적 기능

기독교무용의 예배외적 기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 및 선교적 기능이며, 이외에 기독교적 문화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기독교적 문화를 향상하는 공연예술로서의 기능과 교육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독교무용은 무용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불신자 혹은 구도자들에게 큰 거부감을 주지 않고 복음적 메시지가 전달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함성애, 2005:30). 특히 무용은 비언어적이고, 시각적인 전달방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 상이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예배외적 기능에서는 예배적 기능에 비해 무용장르 및 구성, 음악의 사용 등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보다 더 수용자 관점에 맞춘 무용을 구성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전하는 도구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회중과 보다 쉽게 교감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배외적 기능에 있어서 본질에는 속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의미 있는 기능은 공연예술로서의 기능과 교육적 기능이다. 보다 전문화된 기독교무용가들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독교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할 수 있다면, 때로는 복음적 메시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기독교적 문화를 대중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와 기독교적 대중문화 확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독교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으므로 전도와 선교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무용의 교육적 기능은 신체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지적인 자극을 도울 수 있다. 무용의 특성상 심미안을 길러주고, 사회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무용은 무용의 소재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2. 한국 기독교무용의 흐름과 유형

한국 개신교 초기의 시대적 상황, 선교사 중심의 교회개혁이 중심이었던 상황, 초기 선교사들의 신앙 기반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개신교 초기에 무용이나 춤을 예배나 교회적 활동에 사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용에 대해선 기록이나 활동을 찾아볼 수 없고, 1960년 이전까지는 주로 주일학교의 교육적 목적을 위해 도입된 몸치양 혹은 율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함성애, 2005: 19). 이 율동은 주로 교회 내에서 발표회나 절기행사 때 신자들을 대상으로 보여졌었고, 노래가사에 맞추어 분위기를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무용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이다.

한국 개신교에서 기독교무용과 관련된 의미 있는 시작은 1987년에 시작된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ANM)'팀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ANM의 목요찬양이 시작되면서, 한국교회의 평일저녁에는 수많은 '경배와 찬양' 모임이 생기는 계기를 만들었다. 실제 온누리교회에서 시작된 '경배와 찬양'은 많은 한국 교회들이 찬양과 경배를 받아들이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박용태, 2014, 51-52.). ANM의 등장은 한국교회의 찬양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음악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무용에서도 율동의 틀을 벗어나 워십댄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헌신된 기독교무용인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독교무용전문팀들이 생겼는데, 1980년 조승미 발레단, 호산나발레단(김명순), 1985년 하사팀(박경숙), 1988년 경배와 찬양, 1989년 한국선교무용단(박순자) 등이 창단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이신영, 2001: 65-69; 윤초롱, 2002: 19-20), 이들은 다양한 기독교적 소재들을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개신교회 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예술적 장르에서 무용은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0년대에 ANM의 활동과 다양한 기독교무용전문팀이 등장하면서, 기독교무용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었는데, 이런 짧은 역사로 인해 기독교무용에 대한 분류도 체계화되거나 일관성 있게 정리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8개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독교무용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는 율동을 포함하고 있고, 율동과 비슷한 의미로 몸 찬양이라는 단어를 채용하고 있는 연구도 있으며, 워십댄스(혹은 워십댄싱, 예배무용, Worship Dance), 가스펠댄스(혹은 CCD) 그리고 공통적으로 예술무용으로서의 선교무용(혹은 공연무용으로서의 선교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 뮤지컬댄스와 수화찬양, 1개 연구에서 folk dance를 언급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기독교무용 유형을 조사한 결과, 기독교무용의 정립을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체계적인 분류와 다양한 수용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점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여 유형과 명명에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볼 수 있었다. 지칭하는 용어에도 일관성이 없지만, 기독교무용을 분류하는 면에서도 일관화 된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용의 장르와 기독교무용이 행해지는 모임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있는 등 다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향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을 확대 보급하는 면에서 일반 비전문가들에게는 혼선을 줄 수 있다. 또한 교회에서 사용하는 음악도 공(公)예배에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용에 제한을 하는 것처럼, 기독교무용을 공(公)예배에서 사용할 경우는 어떤 분류까지를 허용할 것인가 등의 논의를 위해서도 일관성 있는 기독교무용의 분류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는 기독교무용의 분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춤의 장르 혹은 음악의 유형, 무용하는 단체의 성격(교회 팀인지, 선교단체인지 등), 도구 등에 따른 분류는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어 기독교무용이 행해지는 목적을 고려한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목적에 따른 분류는 예배를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것은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예배가 행해지는 문화권이 바뀔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공(公)예배를 포함하여, 집회를 제외한 다양한 형식의 예배들에 적합한 기독교무용과 예배 이외의 집회, 절기, 행사 등 보다 자유로운 형식과 음악의 활용이 가능한 기독교무용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독교적 메시지가 내재화된 공연적 성격을 가진 기독교무용으로 분류되기를 제안하며,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예배무용, CCD, 선교무용/기독교예술무용으로 분류할 것을 표1과 같이 제안한다.

분류	내 용
예배무용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그 근본 목적을 두고, 공(公)예배를 포함한 예배에 적합한 음악과 의상 등을 사용하고, 춤의 종류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예배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경의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예배적 역할에 적합하도록 하나님과 신도들을 예배 안에서 매개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CCD	예배무용에 비해 보다 자유로운 춤의 형식을 사용할 수 있고, 집회(전도, 부흥 등) 및 절기, 교회 행사 등에 적합하도록 구성된 기독교무용으로 보다 자유로운 음악(가스펠송, CCM, 모던 워십 등)과 의상 등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이 신자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복음적 메시지를 가지면서도 보다 대중적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독교무용을 포함한다.
선교무용 /기독교예술무용	예술로서의 무용의 성격을 충분히 들어내면서 그 안에 복음적 메시지를 가진 공연예술로서의 기독교무용으로 복음적 메시지를 통한 문화선교, 전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기독교 문화예술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기독교무용을 의미한다.

<표 1. 기독교무용 분류 제안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 분류의 경계는 충분히 모호해질 수 있겠지만, 기독교무용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또한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안무, 의상, 음악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런 측면에서 분류를 제안하였다.

3. 한국 기독교무용에 대한 인식현황과 장애요인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한국교회에서 기독교무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며, 1995년 이후 시행된 기독교무용의 인식현황과 관련된 선행연구 총 10편¹⁾을 대상으로 현황과 장애요인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선행연구는 1995년에 실시된 인식조사를 시작으로 2000년 이후 매년 1~2편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또한 기독교무용의 인식조사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상자가 일반 신자와 목회자, 예비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됨으로써 교회 내에서 기독교무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계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와 향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신자가 포함된 연구가 7편, 목회자가 포함된 연구가 3편, 예비목회자인 신학생이 포함된 연구가 4편이었다.

연구방법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설문기법으로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료처리방법은 10편 모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분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x²-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t-test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로 제시된 항목의 수는 총 287항목이었으며, 해당 항목 중에서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항목 41개를 제외하고 기독교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은 246항목이었다. 조사항목은 기독교무용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인식과 관련된 연구가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의 항목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부분을 각 범주 영역에서 구분하여 세부내용을 확인하였다. 인식부분의 항목으로는 기독교와 무용과의 관계, 예배와 무용과의 관계, 찬양과 무용과의 관계, 기독교무용에 대한 관심으로 분류하였고, 현황부분에서는 무용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시간, 만족도, 활동하고 있는 구성원이었고, 기대부분에서는 바라는 시기와 시간과 내용, 구성원,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가, 주요절기에 참여할 무용예배가 있기를 바라는가, 참여할 의사로 분류하였으며, 가능성부분으로 능동적인 신도로 변화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인식과 관련된 영역에서 '기독교와 무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신도와 목회자에서 '꼭 필요하다'와 '찬양과 선교에 긍정적이다'는 인식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찬양과 무용의 관계'에서도 '찬양의

1) 변현경, "기독교 무용예배 활성화를 위한 신도들의 인식도 조사", 1995; 윤초롱, "한국 기독교 무용의 현황과 발전 방안", 2002; 장소희, "기독교무용의 인식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2002; 최길순, "목회자들의 문화사역에 대한 인지도-기독교 무용을 중심으로", 2005; 함성애, "무용의 기독교에서의 기능과 인식에 관한 연구", 2005; 이지연, "기독교 예배 무용의 가치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2006; 이한나, "예배 무용에 대한 신학생들의 인식도", 2010; 이정인, "기독교무용의 인식변화 분석", 2010; 최지연, "기독교무용의 가치인식 변화에 따른 공연 활성화 방안 연구", 2013; 최수진, "현대 교회 내 기독교무용의 인식분석에 의한 개선방안", 2016.

역할을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무용의 찬양적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무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예배와 무용의 관계'에서는 '예배에 도움과 적극적 참여를 하게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신학생의 경우도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신학생의 경우 '예배에 꼭 필요한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3%(이한나, 2010: 45)로 나타난 것은 앞으로 예배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예비목회자들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유의해 볼 응답으로 보인다.

기독교무용의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주요절기나 행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황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조사내용은 기독교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지 않는 것이고, '모르겠다'를 포함한 부정적 응답이 40% 정도에 있는 것은 기독교무용의 확산 및 공(公)예배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대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조사결과는 기독교무용에 보다 적합한 부분으로 대다수가 여전한 행사와 절기, 선교를 꼽고 있으며, 예배적 역할은 이보다는 낮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기독교무용을 특별 순서의 하나로 혹은 함께 공감하는 예배의 매개적 역할보다는 보는 것 중심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하게 하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기독교무용이 행해질 때 그 '구성원'이 '진공에 관계없이'에 대한 응답이 높다는 것은 무용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용이한 부분이 아니다. 비전문인에 의해서 혹 잘 준비되지 못한 기독교무용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 분명하지만,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는 인식의 반영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기독교무용의 확산이라는 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비전문인이라도 완성도 있는 기독교무용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책임이 기독교무용가들에게 있을 것으로 본다.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기독교무용이 '능동적인 신도로 변화'하도록 도울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고르게 높게 나타난 것은 첫 번째는 능동적인 신도가 되는 것에 대한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기독교무용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으로 보인다. 이것은 일반 무용의 효과에서도 검증되고 확인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바람직하게 제시될 수 있다면 보다 생동감 있고 활기찬 예배를 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들의 조사결과에 있어서 기독교무용이 보다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로 공통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가 50% 전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무래도 한국 개신교 초기 선교시대의 영향과 한국 개신교에서의 기독교무용의 짧은 역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인식조사에서 인식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음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가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무용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아직은 지면이 넓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V. 공(公)예배적 가치로서의 기독교무용의 극복 방안

기독교무용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예술이다. 그리고 그 전문성이라는 것의 지면이 찬양에 비해 취약하고, 비전문가가 제공받을 프로그램도 제약적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교회 내에서 이런 전문

성을 보유한 사람은 제한적이다 보니, 개별 교회들이 찬양대와 같은 역할과 구성, 보다 전문화된 활동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들로 현재는 현신되고 전문화된 기독교무용 팀들을 중심으로 기독교무용이 행해지고 공연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긍정적인 면은 보다 전문화된 팀들의 완성된 기독교무용을 접함으로써 기독교무용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인식을 제고하는 것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제한적인 팀들의 활동으로 인해 예배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공(公)예배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저변을 확대해 가는 것에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준비된 기독교무용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기독교무용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면들을 고려하여 예배적 가치로서의 기독교무용의 극복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요인 분석에 따른 한계와 기독교무용의 방향

본 연구는 기독교무용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류 분석이 목적이 아닌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기독교무용의 장애요인을 통해서 공(公)예배에서 기독교무용이 행해질 때 가지게 될 한계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장애요인으로 제시되었거나, 한계일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된 장애요인 이외에 기독교무용의 공(公)예배 적용에 한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되는 추가적인 항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장애요인 이외의 한계 요인 항목을 도출하였다.

한계 요인에 해당되는 항목은 인식도와 만족도, 장애요인과 관련된 항목이었으며, 인식도는 '기독교무용과 예배'와 '기독교무용과 기독교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 기독교무용의 만족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 제시된 장애요인 항목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각 항목에 따른 기독교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인식도

선행연구는 '기독교와 기독교무용과의 관계'와 '예배와 기독교무용과 관계'와 관련하여 기독교무용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과 더불어 향후에 어떤 역할로 보다 더 적합할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실시현황 보다는 향후의 적합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계 요인이 될 것으로 보였다. 기독교무용의 향후 교회적 역할에 대한 적합도 혹은 필요성과 관련하여 함성애(2005), 이지연(2006), 이한나(2010), 이정인(2010), 최수진(2016)의 연구결과에서 기독교무용이 예배에 적합하다는 응답에 비해 행사와 절기, 선교와 같이 예배 이외에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은 기독교무용이 공(公)예배에서 실시될 때 한계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독교무용의 현황과 유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公)예배에 대해서 보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특성과 예배적 요소로서의 기독교무용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인(2010)의 연구와 같이 '예배'가 다소 높게 조사된 항목에 있어서도 해당 예배가 공(公)예배를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할 때 공(公)예배의 실시에서는 보다

낮은 비율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한나(2010)의 연구에서 예배와의 관계성에 대한 조사에서 '예배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응답이 17.1%인 반면, '예배에 필요한 부분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3%인 부분은 응답자가 향후 한국교회 현장에서 예배의 디자인이나 예배 예전에 대한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신학생이라는 면에서 기독교무용의 공(公)예배 적용에 있어서 한계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만족도

만족도와 관련되어서는 기독교무용을 '본 후의 마음상태'와 '내용에 대한 만족도'의 2개 항목을 함께 조사한 변현정(1995), 윤초롱(2002)의 연구결과가 한계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해당 연구결과에서 '감동을 받았다'의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왔으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감동을 받았다'는 응답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 만일 두 가지 항목이 동일하게 높게 응답되었다면 한계 요인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나, 두 항목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족도가 낮은 기독교무용은 메시지의 효과적 매개체가 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회 내에서 기독교무용은 대부분이 비전공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비전공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비전공자들도 기독교무용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해야만 한다. 단지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진다면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로 오히려 한계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 장애요인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인식과 관련된 장애요인과 기독교무용과 관련된 장애요인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실제 기독교무용이 행해질 때 장애요인으로 제시된 항목이 한계요인이 될 것이다. 관련된 장애요인을 제시한 함성애(2005), 이정인(2010), 최수진(2016)의 연구결과에서 5% 미만의 응답을 제외한 항목을 종합하면 보여주는 것에만 치중, 더 깊은 기독교적 마인드와 성경을 주제로 한 내용, 이해되지 않는 작품의 내용, 테크닉·안무의 전문성, 훈련이 미흡한 기독교무용수, 화려한 헤어·메이크업·의상, 기독교무용수의 이중성, 산만한 모습, 찬양과 조화롭지 못함이었다.

높은 비율로 조사된 장애요인들은 기독교무용가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항목들이었다. 특히 외적요인에서 안무와 관련된 항목이 많을 뿐만 아니라, 비율도 높게 나온 것은 신도들의 기독교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작품내용이 잘 전달되고 이해되는 보다 높은 수준의 기독교무용을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아쉬운 점은 기독교무용은 별도의 안무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열악한 기독교무용의 특성상 무용가와 안무가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고, 헌신된 비전문가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체계 등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기독교무용의 공(公)예배 적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4) 한계 요인에 대한 극복 방안 및 방향성

기독교무용은 일반적으로 개신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예술인 음악과 비교해서 불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독교무용은 좋았다는 응답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음악에 비해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무가의 이해를 바탕으로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 전달되는 무용의 특성 상 다른 상징이나 음악적 도움 없이는 복음적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에 한계를 갖기도 하기 때문이다.

무용의 또 다른 특징은 일반적으로 무대와 세트, 조명, 음악, 의상 등 무용의 도구로 사용되는 신체 이외의 요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런 상징적 도움이 부족하면 그만큼 메시지의 전달력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교회구조는 대부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무대의 공간적 요소와 무대구조, 세트 등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 또한 안무가와 무용가가 고려해야만 하는 요인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장애요인의 결과로 도출한 한계와 무용 그리고 기독교무용이 갖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기독교무용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공(公)예배를 포함한 예배적 요소로서의 기독교무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 및 개선하기 위해 예배적 역할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예배에 적합한 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독교무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독교무용의 중요성이란 함은 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기독교무용이 필요한 요소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무용의 저변이 확대되고, 교회와 관련된 것에 자연스럽게 기독교무용이 스며들어 있는 상태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기독교무용이 예배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복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 기독교무용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모범사례(Best Practice)들을 보여주고, 로드맵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일반 대중에게도 기독교무용에 대한 인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문무용팀들을 통한 공연예술의 활성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기독교무용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연구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팀들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해보고, 보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반 무용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외에 기독교무용가는 풍부한 기독교적 이해가 내재화 되어야 한다는 전제와 기독교적 문화의 기반 하에서 무용을 위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개인에게 일임하기 보다는 먼저 경험한 기독교무용 전문가들이 체계화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기독교무용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한다.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은 신자 혹은 불신자를 막론하고 기독교무용이 행해질 때 적절한 메시지의 선택과 그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모임의 성격(예배, 집회, 행사 등)에 따라 만족의 내용과 기대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기독교무용에 대한 참석자의 기대치는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기독교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든지 또는 무용가에게 내재된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참석자들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비전문가들이 기독교무용을 행했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환경을 전문가들이 준비해주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독교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다양한 장르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

는 현재의 상황들에서 한 가지 우려를 갖게 되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초대교회를 거치는 중에도 예배에 흠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서 금기시 할 뿐만 아니라 죄악시 하게 된 것은 흠에 대한 성경적 근거 혹은 신학적 근거 보다는 당시의 이교도적 문화와 흠이 기독교의 제의 혹은 문화 속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과도한 반응이었다.

이것은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문화 속에 노출된 현대사회와 현대교회, 그리고 기독교무용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기독교무용 팀들에게 반면교사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과연 무엇이 기독교무용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기독교무용가의 자질

모든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가일 것이다. 예술은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능력을 통해서 표현된다.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사상이 드러난 예술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예술작품을 통해 감정적인 교류가 일어나게 된다.

톨스토이는 진정한 예술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는 동시대 최고의 세계관의 수준에 서있어야 하고, 감정을 경험하고 이를 전달하는 욕구와 가능성을 가져야 하며, 어떤 종류의 것이든 예술에 대한 재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톨스토이, 2008: 140-149).

톨스토이의 관점에서 기독교무용가의 자질을 생각해보면 기독교무용가는 먼저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에 서있어야 하고, 두 번째 기독교적 감정을 경험하고 이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무용가로서의 재능이 있어야 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량과 무용가로서의 재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데 기독교무용가는 이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기독교 예술인의 작품은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상상한 세계를 자신의 관점으로 표현한다. 기독교 예술가 역시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경험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나타내게 된다(하재송, 2011, 232-233). 기독교무용가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신앙의 기초 위에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신앙고백이 있는 기독교무용가는 무용가이기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이다. 더군다나 예배 내에서 세워지는 기독교무용가는 삶에서 늘 예배자의 태도가 훈련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레함 켄드릭(Graham Kendrick)은 예배자가 되기 위한 실무지침(그레함 켄드릭, 1990: 198-200)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 예배드리기로 결심하라. 즉 상황이나 여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기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근거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은 현재 진행형이다. 즉 성령의 한결 같은 흐름을 축진하며 계속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 혼자만의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보다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표출하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적인 제한들을 보충하고 예배를 마음껏 표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네 번째, 다른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라. 공동체, 가능하면 함께 공감하는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 보다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옛 습관을 바꾸라. 부정적인 옛 습관과 생각들을 바꾸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일상 생활에서의 예배자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순자(2004)는 기독교적인 무용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의하여 추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능력을 받아 체험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추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무용가의 자세는 구·신약 성경에서의 모범을 근거로, “과거의 모든 선지자나 예수님처럼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능한 목회자 또는 성도들처럼 신실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박순자, 2004: 40-41)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독교무용가로서의 출발선은 기독교 세계관에 그 신앙의 기반을 두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된 기독교무용가는 장애요인에서 지적된 ‘기독교 무용수의 이중성’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런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무용이 충분히 회중에게 전달된다면 미흡한 기독교무용의 만족도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요구되는 기독교무용가의 자질은 이렇게 경험된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무용으로 잘 표현하는 무용가도 포함되었지만, 자신이 경험한 것을 실제적인 무용으로 만들어내는 안무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단지, 훈련된 안무가가 많지 않고 모방에 의한 기독교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다수가 안무가와 무용가의 구분을 갖기 어려운 기독교무용의 현황을 고려해서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기술하고자 한다.

재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면에서도 안무가 혹은 무용가로서의 기술적 역량을 갖추어야 하겠지만, 기독교무용가라면 성경과 음악,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갖출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기독교무용은 기독교 음악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기독교 음악은 찬송가, 복음성가, CCM, 모던위십 등 다양하고, 교단 혹은 교회의 특성에 따라 예배 내에서 찬송가 이외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기독교무용가가 무용을 통해 예배자들과 하나님을 매개해야 한다면 예배자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예배를 돕는 역할의 의미에서 예배자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배를 도울 뿐만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위해 안무와 음악, 의상 등의 사용에 대상이 되는 예배자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신앙고백, 성경과 음악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헌신된 기독교무용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술적으로 예배자들과 교감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내재된 것을 적절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무용적 역량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기독교무용가의 영성도 성령에 의해서 형성되고, 인도될 것이다. 기독교무용가 혹은 안무가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와 같이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준비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보여주는 것에만 치중한다든지, 산만한 모습, 찬양과 조화롭지 못한, 이해되지 않는 작품내용, 훈련이 미흡한 기독교무용수 등의 장애요인들은 상당부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기독교무용의 표현기법

본 연구자는 기독교무용의 장애요인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작품내용', '작품성 미흡', '산만한 모습', '보여주는 것에만 치중'과 같은 것들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무용수의 표현기법이 주요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표현기법의 연구가 필요함을 느꼈으나, 무용이 가지고 있는 특성 상 무용 표현기법을 기술적으로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난해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상당한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세세한 표현기법의 제시 자체는 무용의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표현기법의 측면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의문은 '모든 무용의 장르가 기독교무용으로 사용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과 '기독교 음악에만 맞추어서 하든 다 기독교 무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즉 일반무용의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해도 무방한가 하는 것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었다. 사실 이와 관련된 무용 측면의 기준을 제시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암묵적인 기준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무용의 표현기법 역시 일반 무용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공식화된 틀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무용수(안무가)의 특성, 작품의 소재, 장르적 선택, 공연의 상황 등에 따라 다채롭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용은 무용수(안무가)에게 내재된 예술성을 바탕으로, 이것을 외적으로 표현해 내는 기술적 요소들이 잘 결합되어 표현되는 예술이다.

표현기법에 대한 방안의 제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무용의 특성이 예배자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어 예배를 매개해야 한다는 측면과 비전문가의 참여가 증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의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기독교무용에서의 표현기법은 그 표현이 가지고 오게 될 상징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기독교무용은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범위 안에서 수용이 이루어져야하는 상대적 의미가 존재하므로 두 가지 성격을 고려하여 표현기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기독교무용의 표현기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자의 수용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수단이자 회중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개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 다음은 회중들의 관점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부분에서의 표현기법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되고 무한하며 제한적이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삼상 16:7). 즉 외적표현 형태보다는 무용가의 내적태도를 관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중들의 관점에서는 표현기법의 적절성이 존재한다. 표현기법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예배 내에서 매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예배에 방해가 되거나 거부감을 주어 예배의 방해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무용의 표현기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회중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전달받을 수 있는가 라는 보편적 가치관이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미와 상관없는 동작들의 나열은 표현이 아닌 운동에 불과하다. 기독교무용의 표현기법은 단순히 예술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상대와의 감정적 교류에 기준을 두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면에서 특정 무용 장르의 표현기법의 신중한 선택도 중요하지만, 의미전달로서의 표현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상징과 이러한 표현들의 구성으로 전체 이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 무용이 가지고 있는 형식만을 채용하여 동작들을 나열하는 것은 움직임의 모방일 뿐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석되고 전달

되어야 하는 표현의 목적은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스노우버(Snowber, Celeste)의 주장처럼 움직임의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세련되고 정교하며 얼마나 멋지느냐가 아니라 예배와 기도의 차원으로 교회의 삶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실레스터 스노우버, 2002: 115) 것과 같이 종교적인 표현 영역으로서의 기독교무용이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 특정무용의 장르를 채용한다면 그 무용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의미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범위보다 좀 더 넓게 적용해서, 다른 문화권 내에서 기독교무용을 하게 될 경우를 고려해보면 더 분명해질 수 있다. 무용의 표현은 춤의 형식에 따른 방법을 가지고 형태로 만들어져 생성된다. 이에 언급한 춤의 형식이란 순수무용예술이라 불리는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뿐만 아니라 힙합, 재즈, 라틴댄스, 아프리카 춤 등등 민족마다, 문화권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런 다양한 형식의 무용이 다른 민족에게 혹은 문화권에 전달되었을 때 그 민족이 지닌 특성(문화)에 따라 수용하는 속도와 반응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즈 댄스가 현재는 현대무용의 새로운 장르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제재를 받았던 시기도 있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 특성과 유교적 문화로 인해 주로 예로틱이나 섹시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져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무용의 이미지가 작용한 사례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무용에 있어서 장르의 채용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공(公)예배에서라면 더더욱 고려해야한다.

네 번째, 부가적 표현기법을 사용할 때 보다 더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자의 경험에서 사용한 복과 꽃은 의도와 다르게 결국 무용의 메시지를 방해하고 말았다. '과도한 헤어와 메이크업'같은 것 역시 메시지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영상과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영상의 사용 등은 무용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으면 주제가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독교무용의 표현기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용의 장르별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독교무용이 행해지는 여러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예시와 방안이 연구된다면, 현재까지 선행연구에서 적시된 장애요인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및 제언

기독교무용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내에서 활용이 늘어나고 있고 인식도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예배에서의 활용, 특히 공(公)예배에서의 활용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무용이 공(公)예배에서의 활용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公)예배에서의 활용에 한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公)예배에서 기독교무용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무용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으며, 교회의 활동에서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예배적 역할보다는 '절기와 행사, 선교 등에 보다 더 적합'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과 '예배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교회적 역할에 집중되었던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앞으로는 기독교무용의 예배적 역할에서의 인식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연구와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무용가의 입장에

서 기독교무용의 확산을 위한 것이 아닌, 기독교무용이 다른 어떤 예배 요소와 비교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예배 내에서 예배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메게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公)예배에서 기독교무용이 행해지는 것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개신교 입장에서 한국교회는 짧은 선교역사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의 빠른 성장을 하였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교회는 초기 선교사들의 신학적 영향과 초기 선교시대의 시대적 특징이 한국 기독교에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현재까지 한국 기독교의 전통으로 남은 것들이 있었다. 이런 특징은 무용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한국에서의 기독교무용은 1980년대 후반이 되어 서야 한국교회의 사역에 접목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무용은 폭넓은 반향을 일으켜서 교회 내에서 관심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무용팀을 만드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고, 무엇보다도 헌신된 전문가들에 의해 자생적 기독교무용 팀들이 만들어지고 활동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독교무용의 확산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선행연구의 장애요인에서 지적된 부정적 결과도 생성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타 예술과는 다르게 무용은 신체를 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가적 표현법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비전문가로 구성된 무용팀들이 전체적인 이해 없이 단순한 모방에 의해서 기독교무용을 하게 될 경우 장애요인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론 비전문가들을 도울 수 있는 정보나 체계도 부족하였고, 훈련된 기독교무용가도 부족한 현실이었던 환경에서 겪게 되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해석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독교무용을 공(公)예배를 위한 예배의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서도 초대교회 이후 예배에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이교도적요소가 기독교무용에 들어오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으로 교회 내에서 제재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무용의 예배 활용은 타당한 것이었다. 또한 오늘의 기독교회의 예배를 규정하는 예전의 측면에서도 예배의 요소로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독교무용은 현재 예배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극복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라는 부분에서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무용이 가지고 있는 세대와 인종을 초월하는 공감력에 기반 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독교무용가는 공(公)예배에서의 타당성을 인지하여 설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교회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호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기독교무용의 공(公)예배 활용을 위한 목회자의 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목회자들은 드러지는 예배가 성경적으로 바른 방법에 의해 드러질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참여한 신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기대한다. 목회자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정해진 틀 안에서 혹은 틀의 변형을 통한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이러한 노력의 주체가 된다. 선행연구들에서 기독교무용이 절기나 행사에서 넓게 쓰여질 수 있는 것도 절기나 행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디자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구술 중심으로 행해지는 공(公)예배에서 기독교무용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배적 목적을 메게할 수 있다는 것과 기독교무용이 예배의 요소로 적절하다는 인식을 목회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회자들의 공(公)예배

를 위한 기독교무용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무용이 효과적으로 예배를 매개하는 사례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기존 목회자와 더불어 예비 목회자인 신학생들에 대한 예배적 가치의 기독교무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신학생들은 신학교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이론과 기능성들을 배우는 과정 중에 있어서 예배에 대한 열린 태도와 보다 원론적인 것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때의 경험은 향후 목회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완성도 높은 기독교무용을 경험하는 것, 즉 기독교무용이 복음적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학생들이 신학교의 과정 동안에 기독교무용을 예배적 요소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과 나아가서는 기독교무용의 신학적 이론을 연구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네 번째, 공(公)예배에서의 활용을 위해 기독교무용가의 내적 자질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용은 무용가의 사상이 드러나는 것인 만큼, 기독교무용은 기독교무용가에게 경험되고 형성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두고 표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해석된 복음적 메시지가 기독교무용가의 예술적 재능을 통해서 표현되고, 그것이 대중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공(公)예배에서는 무용가 자신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러져야 한다는 것이 전체가 되어야 하고, 무용하는 자의 자세에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성령에 충만을 받으라는 성령의 명령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무용가가 갖추어야 할 자세이다.

다섯 번째, 기독교무용가의 외적 자질 즉 무용가로써의 예술적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독교무용가가 내적 자질을 갖추고 내적 경험을 바탕으로 복음적 메시지가 해석되었더라도 이것이 가장 적절하게 예술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배자를 매개하는 한 축을 잃어버리는 것이므로, 이 또한 동일하게 기독교무용가의 자질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선행연구의 장애요인들을 통해 확인된 사항들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요인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거나 훈련되지 않은 또는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무용은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문가, 비전문가와 관계없이 기독교무용을 행하는 기독교무용가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무용의 예술적 능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공(公)예배를 위해서 표현기법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내적 자질이 갖추어진 기독교무용가라 하더라도 표현을 위한 재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지만, 공(公)예배의 차원에서 보면 무용가의 표현기법뿐만 아니라 무용의 장르, 의상, 음악, 도구의 사용 등 표현기법과 관련된 부가적 표현기법의 선택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연구자의 경험을 통해 사례를 제시했던 것처럼 대상이 되는 예배자들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예배를 매개하는 역할의 의미에서 예배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기독교무용이 예배자들에게도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받아들이야 할 수용자가 고려되지 않으면 이 또한 안 되는 것이므로 무용의 기술적 표현기법과 더불어 수용자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무용이 공(公)예배에서 행해질 경우 기독교무용가는 목회자의 마음과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예배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적절히 활용하고 디자인하는 역할을 한다. 기독교무용가는 주어진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표현기법과 부가적인 세세한 부분까지 세

밀하게 디자인하는 목회자의 자세와 마음으로 임하는 춤추는 목회자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 따라서 연구자는 공(公)예배에서의 기독교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공(公)예배를 포함한 예배적 요소로서의 기독교무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하기 위해 예배적 역할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이외의 다양한 측면으로 공(公)예배에서의 적절성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실행되는 사례를 연구물로 제공함으로써 공유하고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독교무용의 분류와 용어의 표준화에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와 이런 일들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본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활동 중인 기독교무용 팀들의 협의체를 마련함으로써 기독교무용의 이론적 연구가 확장 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공(公)예배의 특성을 고려한 표현기법에 대한 모범적인 예시와 고려사항들을 정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자질을 포함한 무용의 기본, 표현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을 만드는 일과 비전문인들이 참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방법론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 요소들에 대한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조사와 보완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질과 태도, 표현기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구체화와 체계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향후의 연구가 예배를 구분해서 공(公)예배의 관점에서 질적, 양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기독교무용가의 전문성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기독교무용가는 내적, 외적 자질 모두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모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체계가 필요하다. 이것은 경배와 찬양이 대중화되면서 한국교회에서 자생적이고 비전문적인 개별교회의 경배와 찬양팀들이 생겼던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의 비전문팀들의 내적,외적 자질 확보를 돕기 위하여, 전문팀들(다리를 놓는 사람들, 마커스 등)이 전문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다양한 장르와 특성을 가진 훈련된 기독교무용가를 보유하고 있는 자생적이고 현신된 다수의 기독교무용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기독교무용가들의 현신이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우려가 아닐 수 없다. 기독교무용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교회와 선교단체 등과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서 재능 있는 무용수들을 확보하고 체계화된 기독교무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을 통해 기독교무용의 지면을 확대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신학대학과 일반대학, 대학원 등에서 기독교무용 전공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무용은 기독교회에서의 모든 영역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초 이론정립을 위한 연구 및 실제적인 부분들을 체계화하는 후속 연구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가스펠서브 (2013). 『교회용어사전』. 생명의말씀사.
- 그레함 켄트릭, 김성웅 역 (1990). 『경배 (두란노경배와찬양시리2)』. 서울:도서출판 두란노.
- 김수학 (1982). 『개혁과예배학』. 서울:보문출판사.
- 김용호 (2003). “예배갱신을 위한 예배문화의 새로운 방향성 제안”.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박순자 (2004). 『21세기의 기독교적 무용의 접근』. 서울:도서출판사 금광.
- 박용태 (2014). “1980년 이후 한국교회의 찬양사역 흐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신회신학교.
- 백성흠 (1987). “공예배와 채플에 대한 고찰”. 『신학과 목회 1』. 177-200.
- 변현정 (1995). “기독교 무용예배 활성화를 위한 신도들의 인식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신형섭 (2014). “교회학교 예배갱신과 상징적 예배언어”. 『교육목회』. 46. 96-103.
- _____ (2015). “예전을 통한 회중의 신앙형성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47. 35-62.
- 실레스터 스노우버 (2002). 『몸으로 드리는 기도』. 서울:IVP.
- 윤초롱 (2002). “한국 기독교 무용의 현황과 발전 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 이광호 (2002). “공예배의 회복”, 『국제신학』. 4. 76-99.
- _____ (2002). “안식일과 주일-언약적 의미와 영광의 실천적 주일-”. 『진리와 학문의 세계』. 제6권. 47-72.
- 이영철 (2014).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백성대학교.
- 이정민 (2010). “기독교무용의 인식변화 분석”.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이지연 (2005). “기독교 예배 무용의 가치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한나 (2010). “예배 무용에 대한 신학생들의 인식도”.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장소희 (2002). “기독교무용의 인식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최길순 (2005). “목회자들의 문화사역에 대한 인지도 : 기독교 무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최수진 (2016). “현대 교회 내 기독교무용의 인식분석에 의한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최지연 (2013). “기독교무용의 가치인식 변화에 따른 공연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톨스토이, 이철 옮김 (2008).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법우사.
- 하계송 (2011).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찬양사역과 워십댄스”. 『서울:개혁논총』. 17. 225-258.
- 한은희 (2012). “예배에서의 회중 참여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함성애 (2005). “무용의 기독교에서의 기능과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James. F. White. 정장복 역 (1997). 『예배의 역사』. 콤팩출판사.
- Mike Pilavachi, 채수범 역 (2007).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 서울:규장.